

‘지존’ 신지애 명예전당 입성



골프지존 신지애(22·미래에셋)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명예의 전당’ 가입자격을 얻는 영예를 안았다. 신지애는 19일 경기도 용인 88 골프장 서코스(파 72·6540야드)에서 열린 KLPGA 메이저대회 메트

(KLPGA)
KLPGA 통산 20승... 최연소 입소 자격 획득
상금 1억4000만원 전액 불우이웃에 기부키로

라이프-한국경제 제32회 KLPGA 챔피언십 마지막 날 버디 4개에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쳐 4라운드 내내 선두를 지킨 끝에 12언더파 276타로 우승했다.

2005년 프로에 데뷔한 신지애는 이번 우승으로 KLPGA 통산 20승(아마추어 시절 1승은 제외)을 올리면서 5점을 보태 명예의 전당 포인트 100점을 쌓았다.

만22세4개월22일이 불과한 신지애는 역대 KLPGA에서 세 번째로 명예의 전당 가입 조건을 충족시켰고 입회기간 10년을 채우는 2015년 정식으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

2004년에 설립된 명예의 전당에서 회원은 구옥희(54)와 박세리(33) 두 명 뿐이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맹활약했던 박세리는 30세이던 2007년 KLPGA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다. 신지애가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세운 기록은 이것만이 아니다. 신지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연속 KLPGA 대상을 받았고 2006년 세운 시즌 평균 타수 69.72타는 당분간 깨지기 어려운 기록이다.

또한, 2008년 획득한 7억6500만원의 상금과 2007년 수확한 10승은 역대 최다 기록으로 남아있

고 LPGA 투어로 건너가기 전까지 쌓은 18억원의 상금도 역대 최단 기간에 이룩한 것이다.

신지애는 또한 이번 우승으로 상금 1억4000만원과 함께 KLPGA 영구 시드를 받게 됐다.

3타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신지애는 1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 1m에 붙여 버디를 잡은 뒤 2번홀(파4)에서도 3m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다시 1타를 줄였다.

5번홀(파4)에서 1타를 잃어 추축했던 신지애는 6번홀(파4)에서 바로 버디로 만회한 뒤 10번홀(파5)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우승을 향해 질주했다.

상금 1억4000만원을 모두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신지애는 “처음부터 이번 대회 참가가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김혜윤(21·비씨카드)이 12번홀(파4)과 13번홀(파3)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3타차로 추격했지만 15번홀(파3)에서 1타를 잃고 2위(8언더파 280타)에 머물렀다. 최나연(23·SK텔레콤)은 1타를 줄이는데 그쳐 함께 7언더파 281타를 찍어내 양수진(19·넵스), 김자영(19·동아제약), 김소영(23)과 함께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매혹의 살사

콜롬비아 출신 댄서 엘킨 페리즈와 릴리아나 카이세도가 19일(한국시간) 콜롬비아의 칼리에서 열린 제 2회 세계 살사 페스티벌에서 시범 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U17 女월드컵 4강신화 3총사

▶ 대표팀 주장 김아름

“최선다해 우승 하겠다”

▶ 7골 2도움 여민지

“한 골 더... 골든슈는 내 것”

▶ 수비의 핵 신담영

“그물수비로 실점 최소화”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김아름, 여민지, 신담영(왼쪽부터).

추석날 새벽 스페인과 결승 다름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월드컵에서 4강 진출에 성공한 한국대표팀의 공수 3총사는 19일(한국시간) “우승을 하고 돌아가고 싶다”며 4강 신화를 넘어 한국 축구에 새 장을 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나이지리아와 8강전에서 소나기골을 퍼부으며 4강 진출에 앞장섰던 ‘차세대 주부’ 여민지(17)는 “우승컵과 골든슈를 모두 안고 가고 싶다”며 “(지난 경기에서) 120분간 뛰며 고비도 많았지만 하면 된다는 것을 봤다”고 결의를 다졌다.

여민지는 “결승까지 가기 위해서는 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기회가 오면 골을 넣겠다. 골을 많이 넣어서 골든슈를 안고 한국에 꼭 돌아가고 싶다”면서 개인적인 목표인 8골을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채우겠다고 다짐했다.

여민지는 이번 대회동안 4경기에 출전해 7골

2도움을 기록하며 득점왕 선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함께 4강에 진출한 일본의 쿠비 요코야마(5골 1도움), 북한의 김금종(4골) 보다 골든슈에 가장 근접해 있다.

여민지는 “수비 선수들을 비롯해 모두가 남은 경기에 집중해서 우승하고 돌아가 축하받고 싶다”면서 “국내와 아시아에서는 받아왔지만 FIFA대회에서 한번도 들지 못했던 금색 신발을 안고 싶다”고 말했다.

대표팀 주장이자 미드필더의 축인 김아름(17)은 “우승을 원한다”며 “마음 속 준비상황을 실천하고 싶다. 주장으로서 감독과 코치의 지시를 팀원들에게 잘 전달해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아름은 “(4강을 올라온 것이) 놀랍기도 하다. 아직 목표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한국에 계신 분들 꼭 지켜봐 주시고, 잘 먹고 잘 지내는 만큼 부모님은 걱정하

지 않으셔도 된다”고 근황을 전했다.

부상에서 회복해 한국 수비진을 이끌고 있는 신담영(17)은 “어렵게 올라온 자리다. 스페인전은 나이지리아 전과 달리 방어를 잘 해서 실점을 최소화하겠다”며 스페인전의 승리와 함께 우승을 향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신담영은 수비라인에 부상자가 많이 생겨 새로운 인원을 보충해 경기에 참가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모두가 잘 하고 있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이 더 많은 응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표팀은 2-1로 브라질을 제치고 4강에 합류한 스페인과 22일 오전 5시 아리아마의 레리 콤즈 스타디움에서 스페인과 결승행 티켓을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친다. 북한도 아일랜드를 2-1로 이기고 4강에 합류한 일본과 준결승전을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옥희 올해 ‘최고의 공사’

베테랑 양궁국가대표 윤옥희(25·예천군청)가 올해 세계 최고의 공사로 이름을 올렸다. 차세대 예이스 기보배(22·광주시청)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옥희는 19일(한국시간) 영국 예든버러의 프린스 스트리트 가든에서 벌어진 국제양궁연맹(FITA) 월드컵 파이널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빅토리아 코발(우크라이나)을 세트 포인트 7-3으로 이겼다.

윤옥희는 이로써 올해 최고의 여자 공사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상금도 2만 스위스프랑(약 2천800만원)을 받게 됐다.

끝까지 이어진 거센 추격을 호쾌하게 뿌리친 승

부였다.

윤옥희는 1세트를 28-27로 이겼으나 2세트를 27-28로 내주면서 세트점수는 2-2로 맞섰다. 3세트에서는 코발이 25점으로 흔들리는 사이에 28점을 쏘아 4-2로 달아났으나 4세트를 28-28로 비겨 5-3으로 승리를 확정하지 못했다. 윤옥희는 마지막 5세트에서 코발을 28-27로 1점차로 따돌려 세트 포인트 7-3으로 승리를 확정했다.

베테랑 윤옥희와 대표팀의 ‘차세대 예이스’ 기보배의 준결승전에서는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이 벌어졌다. 윤옥희는 폴세트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1

양궁 월드컵 파이널 ‘왕중왕’전 광주시청 기보배 아쉬운 동메달

발을 따로 쏘아 승패를 결정하는 슈오프 끝에 6-5로 기보배를 따돌렸다. 세트 포인트 5-5(2승1무)로 비기면서 돌입한 슈오프에서 윤옥희는 10점을 명중했지만 기보배는 8점을 쏘고 말았다.

기보배는 이어 벌어진 3, 4위 결정전에서 저스티나 모스피네크(폴란드)를 세트 포인트 6-2(25-26 28-26 27-26 29-26)으로 따돌리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월드컵 파이널은 올해 4차례 열린 월드컵에서 최고급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초대해 예선 없이 바로 결선 토너먼트에 들어가는 대회다. 우승자는 그 해 최고 공사의 영예를 안게 된다. /연합뉴스

TrekSta
LIGHT

Go on a Trip! TrekSta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
 마을의 문을 박차고 나가
 세계의 숨결과 향기를 느끼고 싶다면
 Go on a trip! 트렉스타

PREMIUM EVENT

고어텍스자켓을 구매하시면,
필파워600
덕다운자켓

SEEK | 시크(남성용) EOS | 이오스(여성용)

트렉스타 고어텍스자켓

- 입체 패딩을 사용해 슬림한 핏팅감
- 최상의 투습성, 방수성, 방수성과 내구성
- 고어텍스 프로블록으로 최상의 신체 상태 유지
- 프론트 방수지퍼, 엘딩 디자인 포인트

트렉스타 광주·전라도 지역 대리점 및 백화점			
광주	전주	제주	본부
대리점	전주점	제주점	트렉스타 본사
062-652-6624	063-284-5869	064-723-6777	051-309-3663
062-945-3383	061-727-1118	061-243-6777	서울영양분부
063-857-3663	061-243-1417	062-221-1624	02-863-2566
	061-663-0231	062-510-7712	트렉스타 이매지
			02-861-6370